

다우코닝, 효과적 혁신 위한 균형이 성공요인

다우코닝의 탐 쿡 아시아 지역 부사장이 방한해 효과적인 혁신을 위한 균형이 다우코닝 혁신의 성공요인이었다고 밝혔다.

탐 쿡 부사장은 10월19일 웨라톤 그랜드 워커힐에서 개최된 세계지식포럼의 <혁신 vs 복잡성: 고성장을 위한 균형 잡기(Innovation vs. Complexity: Finding the Balance for Profitable Growth)> 세션에 연사로 참석하기 위해 방한했다.



탐 쿡 부사장이 소개한 다우코닝 혁신사례는 먼저 Smart Innovation으로, 단순한 신제품 개발이나 R&D의 개념을 넘어 제품 뿐만 아니라 사업의 프로세스에도 적용되는 개념이다.

실례로, 다우코닝은 환경친화적인 타이어를 생산해 내기 위한 프로세스를 연구해 더욱 낮은 비용으로 그린타이어에 사용되는 실리카를 생산해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또, 다우코닝의 <3 호라이즌 접근법>은 현재의 사업이 잠재력이 있는 미래 사업에 어떻게 투자할 수 있는 자원을 마련해 주는가를 구현하고 있는 혁신 모델이다.

현재의 사업, 즉 첫번째 호라이즌에 있는 사업은 두 번째 및 세 번째에 위치한 사업, 즉 미래 사업의 성장과 혁신에 있어 큰 잠재력을 제공해 준다.

다우코닝의 혁신의 예로, 쿡 부사장은 다우코닝의 Xiameter 브랜드를 소개했다.

Xiameter 브랜드는 고객의 니즈를 분류해 본 결과, 높은 기술과 세분화된 솔루션으로 고객의 니즈에 따른 맞춤형 다우코닝 제품을 원하는 고객군과, 단지 합리적인 가격으로 다우코닝의 제품만을 대량 구입하기를 원하는 고객군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제품만 원하는 고객에게는 원하지 않는 서비스 부분을 과감히 생략하고 최적의 가격에 제품을 공급하는 웹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이다.

다우코닝은 또 다우코닝 브랜드를 지속적 혁신의 축으로 삼고 있다며, 브랜드는 제품 이상의 더 높은 가치와 서비스 및 솔루션이 필요한 고객들에게 기존과 마찬가지로 제품 및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쿡 부사장은 글로벌화와 시장 경쟁이 격화되면서 점점 더 복잡한 구조를 가지게 되는데, 복잡성이야말로 기업혁신을 가로막는 장애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또 복잡성을 세분화된 고객의 니즈에 따라 최대한 단순화 시키는 것이 현명한 혁신이라고 덧붙였다. <김지은 기자>

<화학저널 2006/10/19>